

[로스쿨 합격기]

두려워말고 나 자신을 믿고 도전하라

유 정 훈

- 1983년 11월 생
- 청주 청석고등학교 졸업(2002)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2009)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I. 처음 인사드리며

제가 고시계에 합격기를 올릴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합격기를 올리신 합격자들을 보며 부럽기만 하였는데 막상 제가 글을 쓰게 되니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떤 글을 써야할지 고민되더군요. 어쨌든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저의 합격당시까지의 과정을 솔직 담백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 합격기를 보시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두는 여기서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I. 로스쿨 지원동기

어렸을 적부터 저의 꿈은 법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법학을 전공하였고 군대를 제대한 후 3년간 재학 중에 사법시험을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험공부의 절대량에 못 미치는 과업 량에 한계를 느꼈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사법시험 공부는 졸업과 동시에 접어야 하였습니다. 이후 취업준비로 진로를 변경하여 공부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개월이라는 단시간에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30장의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3곳의 면접을 보았으나 모두 낙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고 싶고 사법시험은 자신이 없으니 다른 공부를 생각한 결과 PSAT에 나를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행정고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고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모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단어를 선택하자면 고시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무리수 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역시 실패하여 졸업 후 2009년은 저에겐 최대의 방황의 시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실패에 따른 좌절로 인해 심신이 지친 저로서는 뭔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이 청승맞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았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기로 로스쿨에 합격한 과 후배의 조언 그리고 갑작스레 부모님께서 송사에 휘말리게 되어 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부하던 것을 공부하는 것이 합격하는데 있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선배에게 조언을 들은 것이 로스쿨이라는 제도에 지원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부과정에 있어서 고시 준비한답시고 학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실 로스쿨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로 자신감을 가질만한 조건이 생겨 2010년 여름 LEET 지원을 하였습니다. 3회 LEET는 사실 공부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행정고시 1차 준비에 있어서의 PSAT 공부 3개월과 사법시험 준비 당시 인증을 위한 공인영어점수 TOEIC 740이 전부였습니다.

III. 로스쿨 입시준비 - 1차 과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다른 준비하신 분들에 비하여 준비기간이 턱없이 짧아 저도 스스로 인정하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입시 전문 학원을 수강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준비한 기간이 LEET와 논술 공인영어 공부 두 달과 먼

접 준비 한 달 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의고사나 다른 문제보다 LEET 기출문제와 PSAT의 언어논리와 상황판단, MEET의 언어추론의 5개년 이내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기출문제만큼 유형이나 문제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합격했느냐 하는 신빙성여부를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보다 준비기간이 적은분도 있으시겠지만 통상 제 주변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다보니 글에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글을 읽으시다보면 그럴 수 있겠다. 나도 해볼 만하겠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준비했던 입시과정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언어이해

제가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PSAT를 3개월가량 준비했습니다. 실로 이 준비 과정은 LEET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PSAT의 언어논리와 LEET의 언어이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어 쪽은 잘 못했습니다. 수능 언어영역에서도 제가 취득한 수능 점수에서 낮은 등급이었고 PSAT 모의고사나 시험을 볼 때에도 학교 교시원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중 거의 꼴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약과목으로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종 많이 읽어놓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평상시의 독서습관이 점수를 좌우하는 과목입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수험적인 공부를 통한 점수 취득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로스쿨 합격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던 점수 이기에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략을 통해 이전의 성적보다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구했던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1)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라.

저의 최고의 단점입니다. 글을 읽다보면 쉽게 넘겨야 할 부분임에도 호기심을 드러내어 과연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단어가 의미하는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등에 사로잡혀 단어 하나에 수십 초를 허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미시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글 전체의 뉘앙스를 통해 필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글의 강약을 파악하라.

독서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글을 읽을 때 강약을 파악하여 쉽게

필자의 의도를 캐치하는 것이 언어이해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읽고 그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2~3회 정도 읽어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중요부분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읽어나갈 때 체크부분을 중심으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해결해나가기 쉽습니다. 형광펜이나 색연필 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색연필을 사용했는데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3) 문제 먼저 읽고 지문을 보아라.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지문을 보고 문제를 보시는데 글이 장문이다 보니 글을 읽다보면 해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문의 경우 머릿속의 혼란은 더 가중됩니다. 가독성이 뛰어난 분들이야 글을 읽는데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문보고 문제를 읽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험을 보는 것이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문제 맞추는데 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2. 추리논증

LEET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SAT의 상황판단과 비슷합니다. 보통 철학전공자와 법학전공자들이 잘 한다고들 합니다. 실제 전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논리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과목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논리적 명제를 잡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문제의 기본형을 파악하라.

막무가내로 풀다보면 시간만 지체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에 지장이 갈만한 문제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문제의 논리적 기본 형태들을 습득하고 접근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논리와 관련된 책이나 수험서 등의 문제해결의 이론적 구성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의 유형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에 기본 형태를 머릿속에 습득해주세요.

(2) 자신만의 풀이방법을 체득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첫 번째로 기본유형을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문제 해설에서 필자가 제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왕도는 아닙니다. 본인이 3~4회 풀어보고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경우 해설을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필자의

해설에 매달린다면 그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며 실전에서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에 한계가 뒤따르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직접 머릿속에 문제의 기본형을 깔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여타 다른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출제 경향을 분석하라.

언어이해의 경우 소설·비소설 등 전문적인 특정분야에서 몇 문제 나온다는 것이 기출분석으로 나타나지만 추리논증의 경우 1~3회 보았을 때 차이가 났습니다. 저의 실전문제인 3회의 경우 이전 문제와 다르게 법학 관련 문제가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수리적인 계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4회부터는 출제기관의 변경으로 다소 차이가 나서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으니 출제 경향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논 술

LEET 시험에 있어서 오전에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을 풀고 오후에 논술문제 두 문항을 제시하여 해결합니다. 논술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직접 써보고 첨삭지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단 논술 공부 이전에는 맞춤편이나 교정기호와 같은 글을 쓰기 이전에 필요한 학습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의 채점은 지원 대학의 교수님께서 하시는 데 법학 교수분들 이시다보니 논리적인 구성과 맞춤법, 띄어쓰기, 교정기호 등의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체크가 많으니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글의 길이입니다. 주최 측에서 지정하는 글의 길이를 초과하거나 그 미만일 경우 깎이는 점수의 폭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아무리 글의 내용이 좋아도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4회 분량의 논술강의를 인강으로 청취하였고 스터디를 구성하여 4명이 1조가 되어 모의고사의 주제를 통해 서로 간에 첨삭을 하였습니다. 첨삭 스터디만큼 논술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원 강사의 첨삭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논술은 내가 쓴 글을 나의 시각이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해 수긍하는 것이 논술을 잘 보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준비를 한 결과 만점에 가까운 논술 점수를 취득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아무리 글 쓰는 재주가 없더라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글재주가 없으신 분이라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 공인 영어 성적

각 학교마다 원하는 영어의 성적이 다르고 종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적용되는 시험이 TOEIC TOEFL TEPS 세 종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자격인정을 위해 TOEIC을 공부하였습니다. 영어성적은 말 그대로 꾸준히 하루도 놓지 않고 하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료 인터넷 강의와 시중에 판매하는 토익 기본교재와 단어장 세 가지만 가지고 한 달 동안 5회독을 하였습니다.

저는 RC부분이 취약하여 그 부분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특히나 저에게 부담이 되었던 어휘력 향상을 위해 단어암기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전 시험에서는 8월 성적까지만 반영되었으나 제가 준비한 3회 때는 9월 영어성적까지 반영이 되어 막판스퍼트로 영어공부를 한 결과 TOEIC점수가 100점 이상의 향상을 거두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만이 영어점수를 향상하는 길입니다.

IV. 로스쿨 입시준비 - 2차 과정

각 학교에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을 합격하시고 나서 고민해야할 과목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정성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최종합격의 영예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로스쿨 대학의 지원

여러분의 대학의 지원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길은 가군과 나군 두 가지입니다. 두 갈래의 선택이다 보니 협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최고의 효과를 보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한쪽 군에는 안정적 지원 다른 군에는 소신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빵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가 한군데 있지 않는 이상은요. 같은 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어차피 같은 교수진들에게 평가받는 것이니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교수진이 협의하여 점수의 간극을 조율하여 공평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스스로 해당학교의 각 항목 점수비중과 학원가에서 분석한 작년 기준 분석표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장점이 될 만 한 포인트에 맞는 학교를 분석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니다. 카페나 지인 등의 스펙평가등을 통하여 고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작전세력등이 고착화되어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 절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신을 믿고 뜻을 이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이 되는 경우라면 주변의 로스쿨 합격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합격기를 쓴 이유이고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는 이유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2. 자기소개서 / 학업계획서

(1) 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과장하기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게 되면 면접 시에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통해 표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작성하셔야 면접 시에 꼬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쓴 자소서라고 할지라도 꾸며낸 것이 드러난다면 의미 없는 노력에 불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로스쿨을 준비한 친구가 실수로 작성한 자소서가 합격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학업계획서에서 문제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로스쿨에 입학하여 공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문구나 인용구는 가능한 배제하시고 쉽게 써주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취득하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학교 교수님께서 채점하시는 것이 다보니 경어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경력 사항 측면에서

좋은 내용은 모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로스쿨에 접목시킬만한 것은 뭐든지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장학금 수혜(성적과 관련된 장학금이 해당되었지요)등을 기재하는 것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사회경력이 있으신 분이나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일정 경력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취득하고 이러한 경력사항은 개별면접에 큰 영향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아무리 경력사항이 좋더라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 취업 후 단기간 근로한 경우, 단기 봉사활동의 기재 등은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공인 한자 자격증은 좋은 점수를 얻기 좋은 예입니다. 법학공부에 있어서 한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항목

이고 특히 비법대출신의 경우는 좋은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3. 면접 준비

제가 준비한 충북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총점 550점 중 면접이 250점(개별면접 100점, 집단면접100, 자소서 50점 이었으나 이번 입시부터는 총200점 배점)이 나 될 만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만큼 법 실무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표출하는 것이 중요사항이고요, 면접 스테디를 구성하는 것은 면접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또한 스테디를 통하여 면접 준비를 하였고 좋은 점수를 취득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면접 준비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최신경향 시사문제를 파악하라.

매해마다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과 시중 도서를 찾아보면 최신경향 시사100제 등의 시사문제를 면접 식으로 구성하여 Q&A를 기술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실전문제에 더 나아갈 것입니다.

(2) 지원 대학교의 특성화 파트를 분석하라.

각 지원 대학교마다 특성화된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법입니다. 학교의 특성화된 위주로 큰 틀을 짜서 문제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성화 파트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3) 기출 문제를 체크하라.

입시학원이나 인터넷 카페 등의 정보를 찾아보면 각 대학교 별 기출 사례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면접 볼 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출제경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출문제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 기출문제로 연습한 후 최신경향 시사문제 중 지원 대학교에 연관되는 분류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4) 면접 시의 자세

실제 면접장에 가면 준비여부와 관계없이 떨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면접장 들어가기 전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며, 질문에 대처할 경우 중간 중간 호흡하며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법은 면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긴장감과 불안함 등을 통한 혼란을 해소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면접관과의 eye contact”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얘

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전달력은 떨어집니다. 눈 마주치가 어려운 경우 면접관의 미간이나 코끝을 보고 얘기하면 면접관은 자신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므로 이 방법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질문을 받을 때는 약간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세요. 그러면 면접에 더 집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손은 편안하게 앞에다 놓으시고 다리는 다소곳하게 유지하세요. 다리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을 안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방금 얘기는 모 기업의 인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였고 저 또한 사용한 결과 좋은 면접점수를 받았습니다.

V. 이 글을 마치며

지금 한창 수험생들이 면접 준비로 고심하실 시기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스쿨 지원정보의 유언비어로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제목으로 올렸던 “두려워말고 나 자신을 믿고 도전하라.”입니다. 스펙이 없으니 없으니 매체를 통한 또는 제3자를 통한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자는 따로 있으며 그 준비 기간 동안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로스쿨에 뜻을 품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 합격 당락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유언비에 흔들리긴 했지만 처음 도전하는 거였고 그런 처녀비행적인 입장이다 보니 연습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저의 목표는 4기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었거든요. 실제 서류전형과 면접 통합 준비기간이 4개월도 채 안되었기 때문에 또한 제 주변에서 3년 공부해서 안 되신 분도 계셨고 그런 분에 비하면 전 엄청 짧은 입시 준비 기간이었기에 떨어지더라도 편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전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 편함이 오히려 복이 되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일을 다그치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고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저를 20여 년간 길러주시고 지원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로스쿨을 추천하였던 후배 수형이, 조연을 아끼지 않으셨던 동찬이형, 옥동이형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준 충북대학교 고시원 여러분과 박병현 조교님 심적으로 어려울 때 힘이 돼 준 병민이형, 상준이와 같이 스터디를 하였던 민상,근일,승안,혜림,아영,안나와 술이 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